

## 강서 스테이크 상호부조회의 농아 지부 방문

“말은 통하지 않았으나 우리 사이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이 통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표정은 밝고 친절하게 우리를 대해 주었습니다.”라고 서울 강서 스테이크 상호부조회 회장으로 봉사하는 박 명자 자매가 말했다.

강서 스테이크는 연례로 가을에 스테이크 상호부조회원들 및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바자회를 열어 왔으며, 그로 인해 생긴 수익금을 불우한 이웃들을 위해 사용해 오고 있는데, 재작년의 경우엔 은평구에 있는 나환자 요양소를 방문했다.

그러나 작년에는 교회 내에서 우리와 함께 신앙 생활을 하면서 우리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을 찾아

보기로 스테이크 상호부조회 회장단이 결정하고 스테이크 산하 와드/지부의 상호부조회장과 스테이크 역원이 함께 작년 11월 22일에 서울 스테이크 산하의 농아 지부 형제 자매들을 방문하였다. 떡과 과일 등 음식을 준비하여 농아 지부장을 비롯 농아 회원들과 나누었으며 바자회 수익금을 전달해 주었다.

이날 모임에 특별히 서울 스테이크의 김 용일 부장이 참석하여 방문하러 간 역원들에게 “농아 지부 회원들은 어려운 현실과 환경에 잘 대처해 나가는 의지력을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 주고 있습니다.”라고 말해 주었다.

강서 스테이크 상호부조회 역원들의 농아 지부 방문은 “너희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방문하여 저들에게 도움을 베풀어야 하나니”(교성 44:6)라는 경전의 말씀을 실천으로 옮긴 훌륭한 미담이다. 계속 이러한 훈훈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교회 내에서 많이 오고 가길 기대해 본다.□

농아지부 회원들의 즐거운 다과 시간



청주 스테이크 경전 퀴즈 대회 광경

## 청주 스테이크 몰몬경 경전 퀴즈 대회

서울 서 신학 연구원에서는 신학 연구원 중등부에 등록된 청주 스테이크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1월 16일 청주 스테이크 센터인 복대 와드에서 작년 8월의 몰몬경 경전 대회에 이어 후반기 몰몬경 퀴즈 대회를 개최하였다. 소속 와드 및 지부의 명예를 쫓아온 8개 팀의 16명의 형제와 자매들이 출전 대표 학생으로 선발되어 그동안 닦았던 실력을 마음껏 겨루었다. 뿐만 아니라 함께 참석한 와드 및 지부 내의 청소년들은 방청석 퀴즈에 참여하여 그 열기를 한층 더하였다. 청소년들의 영성과 세미나리의 발전을 한눈으로 엿볼 수 있는 좋은 모임임이 확인되었다.

다음은 청주 스테이크의 퀴즈 대회 입상 성적이며 괄호 안은 소속 와드 및 지부의 출전 대표 학생 명단이다.□

- 1위 : 삼성 와드(정 연일 형제, 이 소영 자매)
- 2위 : 공주 지부(이 철우 형제, 이 정자 자매)
- 3위 : 상당 와드(김 지현 형제, 장 동희 자매)



성금을 전달하는 강서 스테이크 상호부조회 회장 박 명자 자매와 받는 농아 지부장

# 교회 및 지역 소식

편집자 주 : 미쓰기 세쓰고 자매의 기사(성도의 벗, 1987년 7월호, 교회 및 지역 소식, 112-113페이지)가 실린 이후에 그녀는 작년 11월 5일부터 11월 7일까지 서울 성전을 방문하여 자신의 부친을 비롯한 조상들을 위한 대리 의식을 받고 돌아왔다. 그녀는 그녀가 한국에 머무는 동안 한국 성도들이 베풀어 준 사랑에 감사하고 또한 조상을 위한 성전 대리 의식을 행하고 난 이후의 느낌을 편지로 보내 왔다. 여기에 그 기사를 발췌하여 실는다.

## 오랜 소원 : 성전 대리 의식

하늘에 촘촘히 박혀 있는 별들, 넓은 바다에 반짝이는 금빛 보석을 만드는 달 그리고 나만이 마치 세상에 존재하는 듯 느껴졌습니다. 어두움과 그에 어울리는 정적 속에서 나는 널따란 2등 선실 창가에 앉아 조국에 대한 타는 듯한 그리움을 달래고 있었읍니다. 모두 다 잠든 밤에 나는 부친이 열 일곱 살 때인 지금부터 50년 전에 건넌던 그 현해탄 바다를 계속하여 바라보며 만감이 젖어 조국을 생각하니 삼초자 오지 않았읍니다.



오른쪽에 서서 웃고 있는 미쓰기 세쓰고 자매. 그녀는 와드 초등학교 교원으로 봉사하고 있다.

사랑하는 부친을 여의고 곧바로 계보 사업을 해야겠다고 별렀으나 벌써 1년이 지났읍니다. 부친이 생전에 즐겨 가지고 다니시던 가방 속에서 부친의 사진을 꺼내어 선실 창에 걸쳐 놓고 사진을 바라보며 마음 속으로 외쳤읍니다. “아버지! 이제야 아버지의 고향이며 저의 고향이기도 한 곳으로 갑니다.”

나는 일본에서 태어난 한국인으로서 민족적 이질감 때문에 당해야 했던 고통으로 결국 일본국으로

귀화하였으나 이러한 경험으로 말미암아 나는 더욱 조상에 대한 그리움을 지니게 되었고 경전에 언급되어 있는 “조상에게 하신 약속을 자녀의 마음에 심을 것이요, 자녀의 마음을 그 조상에게 돌이키게 하리라.”(교성

2:2)는 말씀의 의미를 알 것 같습니다. 이 약속은 자녀들의 계보 준비와 성전 대리 의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조셉 필딩 스미스 대판장이 말씀했으며 이것은 나를 포함한 모든 백성들에게 주어진 약속이기도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7년 전 냉랭한 세상에 실망하여 삶 자체가 문제되었던 시기에 마쓰야마(松山) 거리에서 두 젊은 선교사들과의 만남은 물문경의 예언자 니파이의 말과 같았읍니다. 참으로 그 “때에 나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미처 알아 차리기도 전에 영에 이끌려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 때부터 나의 인생은 변하기 시작했으며 주님의 도움으로 믿음과 희망과 사랑이 더해 갔읍니다.

니파이의 말씀과 같이 “환난을 겪기는 하였으나” 나는 주님의 은혜로 이제는 진실한 마음의 평안과 행복을 느끼게 되었으며 보람찬 삶을 계속 영위할 것입니다. 생전 처음으로 만날 수 있었던 사촌 언니들과의 접촉이 시작된 것도 크나큰 행복이었읍니다.

사흘 동안 서울 성전 건물 안에서 생활하는 동안 형제 자매들의 따뜻한 우애를 접할 때 하나님의 성스러운



미쓰기 세쓰고 자매와 남편과 자녀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동포들이 스스로 수행할 수 없는 일을 행하여 줌으로써 이러한 면에서 동포들의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성전 의식을 행하는 동안 나는 나 자신의 지나온 생을 돌이켜 보며 그 동안 가슴 속에 앙금처럼 남았던 원한, 고난, 번민 등 성스럽지 못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녹아 버리고 온 몸은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찬 듯 느꼈습니다. 나의 부친과, 내가 본 적도 만난 적도 없는 부친의 양친, 형, 누나를 위한 대리 의식을 행했을 때 나의 마음에 조상을 향한 넘쳐 흐르는 사랑을 느꼈습니다.

“주님은 온 인류를 위해 대리 사업을 행하셨습니다. 그는 인간에게 죽은 자를 위한 대리 의식을 할 수 있는 작은 권능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동포들이 스스로 수행할 수 없는 일을 행하여 줌으로써 이러한 면에서 동포들의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이 얼마나 훌륭한 특권입니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같은 방법으로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지니고 있어서, 우리의 도움이 아니라면 결코 받을 수 없었던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이웃과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교리, II-144 참조)

서울 성전에 참여할 수 있게 큰 도움과 격려를 해주신 동경 성전의 마쓰시다(松下) 형제님, 시부야 와드의 감독단 보좌인 윤 방부 형제님께 감사드립니다.

서울 성전에서 나를 도와 주셨던 여러 형제 자매님들께 마음에서 우리나라 오는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

## 인천 스테이크 부평 와드 헌납

1987년 11월 14일 오후 4시. 인천시 북구 부평동 401-5번지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주님을 경배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이 모일 아름다운 집회소 건물이 완공되어 헌납식이 있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정규 집회소 건물을 갖고 싶었던 인천 스테이크 산하 부평 와드의 회원들에게는 특별한 기쁨이 되었다.

이 세경 부평와드 감독은 주택가에 완공된 아름다운 이 건물은 주님의 도우심과 회원들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결실이므로 신앙을 새롭게 하자고 말씀했으며, 홍 유남 인천 스테이크 부장은 성도들 가운데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들이 없도록 축복하고 자라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복음을 배우고 실천하는 전당이 되도록 기도하였다.

200여 명의 회원들이 모여 기쁨을 나누었는데 부평 와드의 역대 감독, 지부장, 스테이크 내 신권 역원을 위시하여 한국 관리 본부의 시설 책임자인 버치 형제 등 건축 실무자들과 대표가 참석하였다. 헌납식 후에는 아론 신권 청년과 청년들의 발표회가 있었다. 부평 지역에 복음 전파의 교두보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부평 와드의 헌납식은 큰 의미가 있었다. □

## 부산 서 스테이크 청소년 예술제

1987년 12월 30일에 부산과 마산에서 스테이크 청소년 예술제가 성대히 개최되었다. 3부로 나누어져 진행된 모임에서 1부에서는 일 년 동안 같고 닮은 각 와드, 지부 청소년들의 연극, 풍트, 탈춤, 에어로빅 등의 다채로운 발표회를 가져 자신들의 기량을 마음껏 자랑했고 2부 순서에서는 가요 경연 대회와 청소년 솜씨 자랑의 한마당이 벌어졌다. 이어 벌어진 3부에서는 다함께 무도회를 가져 저물어 가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송년의 밤을 뜻깊게 보냈다. 이틀 동안 개최된 모임에 많은 청소년들이 참석했으며 1부의 문예 발표회에서는 밀양 지부와 삼천포 지부가 대상을 차지 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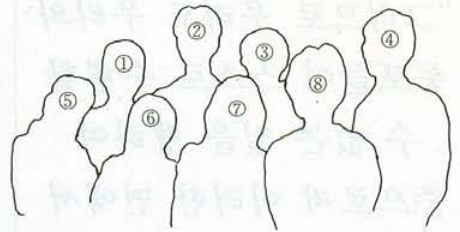


헌납식에 참석한 신권 역원들 ▶

▼와드 건물 앞에 모여 기뻐하는 성도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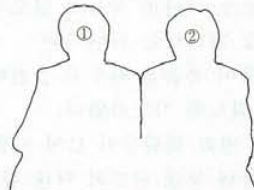
# 교회 및 지역 소식



- ① 천 성환 장로(신정 지부) 부산 선교부
- ② 박 형태 장로(사당 지부) 대전 선교부
- ③ 박 철순 장로(면목 와드) 대전 선교부
- ④ 신 정호 장로(강릉 지부) 부산 선교부
- ⑤ 이 혜경 자매(성남 와드) 부산 선교부
- ⑥ 문 정화 자매(금촌 지부) 부산 선교부
- ⑦ 황 정숙 자매(남원 지부) 대전 선교부
- ⑧ 이 용희 자매(빈동 와드) 대전 선교부

◀ 제83기(1987년 10월 19~28일)

## 한국 선교사 훈련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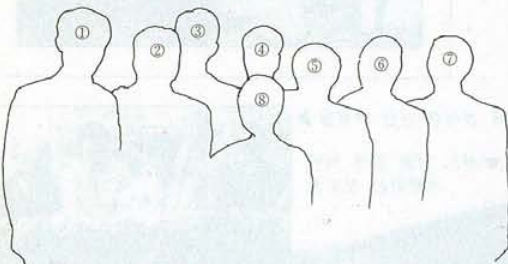


- ① 박 장규 장로(경주 지부) 서울 선교부
- ② 안 인균 장로(개봉 와드) 부산 선교부

▶ 제85기(1987년 12월 14~23일)



▶ 제84기(1987년 11월 16~25일)



- ① 안 성진 장로(목포 와드) 서울 선교부
- ② 김 계섭 장로(경주 지부) 서울 선교부
- ③ 박 학수 장로(진해 와드) 서울 선교부
- ④ 허 광희 장로(복대 와드) 대전 선교부
- ⑤ 홍 도기 장로(풍향 와드) 서울 선교부
- ⑥ 박 환수 장로(정주 지부) 서울 선교부
- ⑦ 박 중규 장로(둔촌 지부) 부산 선교부
- ⑧ 박 성미 자매(개봉 와드) 부산 선교부

